



# “완벽한 준비 대회 성공 확신...北 참가 끝까지 기다릴 것”

## 클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래리 링크 FISU 의료위원장 “광주 메르스 청정도시 유지 성공 개최에 큰 힘 될 것”

“광주 U대회의 준비 상황이 완벽해 성공 개최를 확신합니다. 또한, 북한 선수단이 단 하루, 한 게임이라도 참여했다면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U대회 주최 기관인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의 클로드-루이 갈리앙 회장은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FISU는 직전 카잔 대회 이후 2년간 북한과 접촉하면서 남북선수단의 개막식 동시입장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180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약속했던 북한이 개막 직전 일방적으로 파견 취소를 통보한 상태다.

반면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윤석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북한 대표단



의 참가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하는 등 갈리앙 회장과 어긋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갈리앙 회장은 또 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선수들의 숫자 등 참가규모 등에 비해 볼 때 이번 광주 U대회는 잘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면서 “광주는 특히 1980년대 민주화 당시 인권을 위해 학생들이 활동했

던 곳으로 개최 도시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극찬했다.

에릭 샌트롱 FISU 사무총장도 “이미 선수촌에는 5000명 이상의 선수단이 들어와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지금까지의 대회 준비가 만족스럽다는 평가 등이 나왔다”고 호평했다.

그는 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참가선수들과 대회의 많은 것이 전달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전용 채널을 통해 개인경기는 결승전, 팀 경기는 준결승과 결승전이 생중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메르스 방역 대책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다.

래리 링크 FISU 의료위원장은 U대회를 앞두고 한국에서 유행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광주가 메르스 청정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로 대회 성공 개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광주시의 현 메르스 방역 대책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 완벽하며 메르스도 잘 통제되고 있다. 현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 광주에 있는 선수들이 메르스에 걸릴 위험성은 사실상 ‘제로’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성화봉송

2일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 서구 운천저수지 구간을 달리고 있는 광주 U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성화봉을 들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 간판스타 기보배.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600여명 초청 FISU 갈라·환영 리셉션 행사

### 윤장현·김항식 공동위원장 ‘베스트 페어플레이상’ 수상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와 FISU는 2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FISU 갈라(GALA)·환영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갈라 행사에는 FISU 집행위원회와 동·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예정도시 조직위원회 등 관계자 600여명이 초청돼 대회 유공자를 격려하고, 차기 대회를 소개하는 자리 등이 마련됐다.

갈라 축하 행사로는 삼고무와 축하무 등 식전공연에 이어 환영사, U대회 유공자 시상식, 차기 개최도시 프레젠테이션 등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윤장현·김항식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평화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FISU로부터 ‘베스트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세계 대학 스포츠계에서 대활약한 ‘베스트 남녀선수’에는 러시아의 스케이팅 선수인 크세니아 스톨보바(Ksenia Stolbova)와 페도르 클리모프(Fedor Klimov)가 선정됐다.

‘베스트스포츠 연맹’에는 국제스키연맹(FIS), ‘베스트국가연맹’에는 러시아학생 스포츠연맹(RSSU), ‘베스트미디어 파트너’에는 유로스포르츠가 선정되는 등 10여개 부문에 걸친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광주 U대회 성공 기원

### 오늘 협의회 후 개회식 참석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광주에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대회를 기원한다. 광주시의회는 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이동희 협의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참석한 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와 ‘지방소비세출 인상 촉구’ 등 건의문 4건과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등 총 6건을 협의회 후 처리하게 된다.

시·도 의장들은 회의를 마치고 지난 5월에 개관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견학하며 저녁에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성공 개최에 힘

을 보낼 예정이다.

조영표 의장은 “전국 의장들과 역사적인 U대회 개막을 함께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장단협의회를 광주에서 주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각 시·도 의회는 메르스 등 많은 악재를 극복한 U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대회 홍보 등에 힘을 합쳐왔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매달 열리고 있다.

/\*특별취재단=최권일기자 cki@

## 러시아·리투아니아 ‘썰썰’ 동남아 ‘필필’...잠비아 ‘점퍼 준비해와 다행’

## 광주 초여름 무더위 각국 메달사냥 ‘변수’

30도를 오르내리는 남도(南道)의 초여름 날씨에 참가국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러시아, 리투아니아 선수들은 무더위에 썰썰매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더위에 익숙한 국가의 선수들은 팔팔 날고 있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8.2도, 평균 습도는 74.7%로 불쾌지수는 75까지 치솟았다. 기상청은 광주U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3일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회 기간(3~14일) 광주·전남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날씨가 각국 선수들의 메달 사냥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선수가 반소매 또는 민소매의 유니폼을 입고 목을 축이기 위해 물병을 들고다니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날 선수

촌에서 만난 잠비아의 육상 선수 시무코와 찰스(20) 등 한 무리의 선수단은 두꺼운 점퍼와 긴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현재 잠비아는 돌풍이 부는 겨울 날씨이지만 냉방을 하는 선수촌 안은 꽤 춥다”며 “만일에 대비해 미리 점퍼를 사왔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에서 온 선수들은 자국 날씨와 비슷하다며 오히려 더위를 받기는 모습이다.

지난해 3월 FISU(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포럼이 열린 광주를 찾았다가 내내 추위에 떨었다는 싱가포르 선수단 매니저 친 에(35)씨는 현재 광주 날씨에 싱가포르 선수가 경기를 치르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태국 선수단을 인솔하는 통역 요원 한

희라(여·25)씨도 “서있기만 해도 땀이 줄 줄 흐르는데 태국 선수들은 전혀 더운 눈치가 아니다. 물만만 불고기 같다”며 신기해했다.

동유럽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에서 온 마라톤 선수 바이다 즈시나이트(여·27)는 대회가 개최하기 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선수촌에 들어와 훈련하는 도중 발목의 통증을 느껴 매일 선수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러시아 육상 선수팀 코치 유릴 쿠카노프(63)는 “15도 정도인 러시아 평균 기온과 한국 기온이 확연히 달라 선수들 체력 안배와 기후 적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기온이 이번 대회의 성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